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1년 2월 5일(금) -- (윤력 12월 24일) -- Пятница 5 февраля 2021г. № 5 (1192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친애하는 여러분!

2월 8일은 러시아에서 과학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직업 명절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의 현실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21년을 '과학 기술의 발전의 해'로 삼았습니다. 사할린주는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가두리 양식, 기후변화 기획 실행, 디지털 경제화 및 사할린주가 지향하는 바를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과 관련된 중대한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아카데미과학과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멀티 대학교를 설립하고 사할린국립대학과 국내 우수대학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채택될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지역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고등교육부와 공동으로 사할린의 해양연구 자동화 방식 특별 설계국의 재정적 상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40년 넘게 사할린 지역의 해양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과제들을 계속 성취할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특별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졸업 후 고향에 머물며 이곳에서 자신의 흥미로운 사업에서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심과 전망, 사업의 중요한 형식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모든 분들에게 생산적인 연구와 커다란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과학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2월 8일은 러시아의 과학의 날이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 사할린 연구자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주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상호작용 지도안 개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원격 방식으로 기업인들에게 사할린 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기획 사업에 참여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주 주지사가 주재한 투자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알려졌다.
사할린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시범 지역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은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툴라 및 모스크바주에서도 계획되어 있다.
디지털 서비스 지도안의 도움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사할린과 쿠릴에서 사업 전개에 대한 철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망 - 전기, 난방 공급망,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가스 공급, 인터넷과 통신망 - 에 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또한 사할린 지역 물류 항목에서는 항공, 철도, 항만, 교통망의 정보도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법적 표준 문서와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전하고 있다.
이 지도안을 통해 사할린 지역에서 시행될 모든 투자 계획들이 축적될 거라 전망하고,
잠재적 거주자들은 관심이 가는 측

정치적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리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사업 계획을 위한 편리한 도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기업가들이 지원책을 고려하든, 안 하든 사업의 경제 지표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의료와 사회복지를 디지털화했다.
현재 사업이 원격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설명했다.
2020년에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투자 매력력이 높은 지역 상위 30위 안에 진입했다. 주지사는 2021년에 국내 지역 등급에서 더 올라가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업과 효율적인 피드백 관계가 이뤄지고, 행정적 부담 감소와 서류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단계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허가 발급에 따른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평균 건축 허가 서류를 받는 기간도 120일에서 47일로 단축되었다.

부총리, 사할린 지역의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 평가

마라트 후스놀린 연방 정부 부총리가 사할린주의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 1년간 사할린 지역의 주택 건설량은 국가 계획의 목표 수치를 초과했다. 이런 정보가 극동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러시아 연방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가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재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와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극동지역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사할린주의 2020년 총결에 따르면 43만6천㎡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는 2019년보다 10만㎡가 넘는다. 올해 주택 건설 계획은 50만㎡로 설정됐다.
"국가 계획에 따른 평균 건설 표준량은 1년에 1인당 0.82㎡이다. 사할린주는 지난해에 이 과제를 과감히 추진하여 주의 건설 지표는 1인당 0.89㎡였다. 사할린주는 이 방면에서 국내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다. 우리는 사할린 주지사와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 상세히 논의 중이다."라고 마라트 후스놀린 총리가 밝혔다.
사할린주는 올해는 다음 단계 - 2017년 1월 1일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택으로부터 이주 - 로 넘어가고 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향후 5년간 연방 예산을 투입하여 이 과제를 완전히 해결할 계획인 가운데 5년간 2020년 12월 1일에 확인된 64만㎡ 이상의 새 주택으로 이주시킬 일이 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 및 투자 기획 실행의 결과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 이행에 관해 논의했으며, 2021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의 우선적 과제를 설정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밝혔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일본 영화제 개최

2월 5일-7일 일본 영화제가 열린다. 사할린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일본 재단이 주최한다.
영화제는 영화관 '옥차브리'에서 상영되는 가운데 개막식은 2월 5일 18시45분에 열리며 개막작으로 시라이시 카즈야 감독의 '히토요'(하룻밤)가 상영된다. 관객들은 이번 영화제 때 장편 4편 외 애니메이션 여러 편을 볼 수 있다. 입장은 무료이고, 관람권은 옥차브리 영화관 매표소에서 배부하는데 영화 상영 전날부터 이뤄지며 나머지는 상영 당일 배부한다고 일본 총영사관이 전했다.

개방의 날에 사할린 주민들, 중앙 진료소로 초대

2월 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재 주 중앙 진료소가 개방의 날을 진행한다. 이날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주요 전공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를 하는데 중앙학 전문의의 소견 없이도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의 목적은 중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으며 병리적 검사와 발견, 의학적 징후가 있을 시 진단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와의 인터뷰 '외교관은 애국자여야 하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월 10일은 러시아 외교관의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사는 러시아 외무부 사할린대표부 지도자 블라디미르 노소브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다가오는 러시아 외교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러시아 외무부 사할린 대표부는 언제 창설되었나요?

- 사할린 대표부는 러시아 연방 정부령에 의해 1992년에 설립되었는데 실제 업무는 19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표부의 주요 업무는 러시아 외교 정책에 따라 지역의 국제 및 대외 경제 관계를 조정 지원하며, 지역이 국제법 규범과 러시아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외무부 대표부는 외국 파트너와의 무역, 경제 및 기타 관계 개발 지원 및 영사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 대표님은 언제부터 대표직을 맡으셨고 어떻게 외교관이 되셨는지요?

- 2006년부터 러시아 외무부 사할린 대표로 부임했고 이 자리에 오기 전 훗카이도 삿포로 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에서 부영사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2001년에 외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사할린주 정부 국제 및 대외국 부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외무부의 훗카이도 총영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제의를 받았습니다. 부영사로서 비자 업무와 러시아 국민에게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러시아 지역들과 훗카이도 간 협력지원 및 공공외교 발전에도 힘을 썼습니다. 사실은 보다 폭넓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당시 유즈노사할린스크-삿포로, 유즈노사할린스크-하코다테 항공편이 있었고 코르사코프-와카나이 연락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했고, 가끔 홋스크-오타루-홋스크-와카나이 연락선도 운항되었습니다. 수백 척의 러시아 어선들이 훗카이도 항구들에 입항했고, 훗카이도로 수천 명의 러시아 국민들이 방문했죠. 그리고 훗카이도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체류하거나, 임시 거주하곤 했습니다. 총영사관 외교관들이 자주 출장나가 있었으니 제가 담당 업무 외에도 모든 업무를 익혔죠. 총영사관에



블라디미르 노소브
바이칼경제법률대학 졸업,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연해주 공무아카데미 졸업, 러시아 외무부 소속 외교아카데미 자질향상 연수 수료.
기혼. 자녀 1남2녀.

서 근무할 때의 경험은 사할린 대표부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 대표님 생각에는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나요?

- 외교관은 애국자여야 하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할린주에는 어느 나라 외교관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 가장 큰 외교기관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이고, 2019년에는 러시아 주재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 영사출장소가 생겼고요. 2007년에는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가 열렸고, 그 외 미국 명예 영사, 네덜란드 왕국 명예 영사, 영국 명예 영사, 키르기스공화국 명예 영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외무부 대표부

로서 서로 교류를 잘 하는 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많은 행사도 취소했었죠.

- 우리 신문이 한민족지라서 당연히 한반도 국가와의 관계를 궁금해 합니다. 사할린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할린 정부의 최우선 활동 분야 중 하나가 국제 및 대외 경제 협력이라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외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와 관련 지역부처가 함께 일하며, 러시아 연방의 단일 외교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양 국가와 잘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국제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사할린주에는 조선공화국에서 약 3000명의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사할린주 정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 실무그룹이 있고 매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재 조선공화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 문을 닫은 상태죠. 사할린주는 문화교류도 했었고,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에서도 조선공화국의 작품들을 여러 번 전시했으며, 조선문화에 관한 상설 전시관도 있습니다. 또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대사 아.마체고라)이 해마다 러시아어 경시대회를 펼쳐 우수 학생들에게 러시아 극동 지역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사할린주도 대사관 요청으로 여러 번 조선공화국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할린 지역의 주요 해외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과 지역적 근접성과 항공, 항만의 직항로, 상호보완 경제가 사할린주와 대한민국의 경제무역 협력의 주요 요소입니다. 수년에 걸쳐 사할린주는 대한민국과 무역 협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2020년 9개월 동안 사할린주와 한국 간 대외무역량은 미화 42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양국 간 총 대외 무역량

의 1/4로서 2020년1월부터 11월까지 총 교역액은 미화 173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할린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 측과 투자협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에는 건설, 관광, 종합 수산업, 도매 및 소매 무역, 생산 가공 및 무역 부문에서 한국의 투자자와 함께하는 60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석유·가스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대형 석유회사 기획인 '사할린1'과 '사할린2'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로서 또는 하청 대행으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 알려진 기업들로서 '현대', '대우조선', '한국 폴', '한국 가스공사', '삼성', '두산' 등이 있고, 석탄 산업에서 협력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삼성', '에스 아이 리소스', '코카(KOCA)리소스'가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주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분포되어 있어 그 수가 2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이 사할린과 한국 간 상호관계의 특징입니다.

역사적인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할린 한인들의 열망은 사할린 지역과 한국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한 상호작용의 사회문화적, 인도적 교류에 사할린 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박순옥 회장 같은 경우 그분은 사할린 주지사 산하 민족 및 종교 간 관계 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사할린주는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자매 및 경제교류에 대한 협약을 했고 안산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흠스크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며, 코르사코프 시는 삼척과 우호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주는 보건, 의료,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 지난해 9월 30일은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수교 30주년이었습니까. 향후 협력 전망에 대한 비전은 어떠신지요?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안전은 중요합니다!' 퀴즈대회의 결과 발표

'사할린 에너지'회사, 사할린주 교육부, 러시아 비상대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전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할린주 15개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14일 - 18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퀴즈대회 우승자들 명단이 1월 29일에 발표되었다. 우승자 시상식도 온라인 퀴즈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퀴즈대회의 20개 문항은 모두 생활활동의 안전을 주제로 하고 있어 성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매우 어려웠다. 대회 총결과 우승자는 3명으로 확정되었다. 1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소콜 마을의 중학교의 즐라타 코르센코가 차지했고, 2위는 같은 학교 학생인 빅토리아 알렉세예브나가 차지, 3위는 오하시의 제7 중학교의 티무르 아미로브가 차지했다."고 안드레이 팔킨 러시아 비상대책부 사할린 총국 주민보호 및 민방위국의 민방위 및 주민교육과 과장이 말했다.

현재도 누구나 '안전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사이트에 있는 퀴즈대회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에는 화재경보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데 소년 세냐가 '안전은 중요합니다!'프로그램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사할린 에너지 측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викторины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29 января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онлайн-викторины, которая с 14 по 18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ходила в 15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партне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Церемония объявл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шла в том же формате, что и викторина, — онлайн.

"Двадцать вопросов викторины охватывают почти все 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многие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ответить даже взрослым. В итог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три победителя.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Злата Коршенко из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села Сокол. Она заработала больше всего баллов. Следом за ней идет ученица этой же школы Виктория Алексеева, а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Тимур Амиров из СОШ №7 Охи", — рассказал Андрей Палькин,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подготовки населения упр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ГУ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пробовать пройти викторину 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 она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программы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Там же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овый мультфильм, посвященный пожарным (дымовым) извещателям, с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программы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мальчиком Сен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사할린에서 '나와가'미식 축제 개최

'나와가' 축제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할린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 참가자들은 신선한 '나와가'와 '코류슈카'로 만든 독특한 요리를 특별 메뉴에 넣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원하는 사람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번 축제에는 사할린주의 카페와 음식점 20여 곳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서 축제 메뉴는 1인분에 400 루블이라는 단일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메뉴에는 나와가 튀김에 브로콜리 푸레, 체다 치즈와 해물 크림소스를 곁들인 홍합, 감자 푸레와 야채를 곁들인 양파 얇은 향긋한 코류슈카, 게살 크림소스를 곁들인 나와가 튀김, 일본식 양파를 곁들인 나와가 등이 있다.

축제를 마무리하며 '만찬' 시식 행사가 펼쳐진다. 요리를 준비할 3명의 요리사는 국제 수준의 셰프 겸 조리사 미하일 나베레즈니, 사할린 요리사 연합회 회장이자 '사쿠라'식당 사장, 러시아 국립 셰프 및 조리사 조합 회원인 알레리 코왈료브, 발칸과 지중해 요리의 대가인 마르코 라도바노비치 등이다.

만찬은 2월 28일 저녁18시부터 21시까지 호텔 '메가팔라스' 1층 마르키즈 연회장에서 열린다. 미식 축제는 사할린주 관광 안내센터가 '사쿠라' 레스토랑과 사할린주 요리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8면에 계속)

한국 행안부,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 안내

10위 이내 유해 봉환, 9월 중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납골당에 안치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을 9월 중 실시한다고 26일 공고했다. 봉환 규모는 10위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며, 유해는 화장하여 충남 천안 소재 국립망향의동산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월 12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팩스)해 달라고 공고했다.

봉환대상 선정 요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기간의 희생자로서 현지에서 사망한 자(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된 자), 사할린에 묘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

가족이 있는 경우 전원 봉환에 동의해야 함)이다.

선정 순위는 1순위로,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영주귀국자 제외), 2순위는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3순위는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이 경우, 배우자의 유해도 봉환가능하나 유해봉환에 드는비용은 유가족이 부담)이다.

유해봉환 신청은 유가족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강제동원조사법 제3조)가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우편번호) 30116, (팩스) 044-204-8989로 제출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044-205-6575,6579로 문의하면 된다.

(코나스)

사할린 건설 분야, 1년 만에 80억 루블리 감소

사할린 통계국은 2020년 사할린 지역의 건설 경제 부문의 사업 상황을 산정했다. 건설 분야의 사업량이 확연히 줄어든 가운데 2019년에는 784억 루블리의 건설이 이뤄졌다면, 2020년에는 701억 루블리로 크게 줄었다. 하락된 건설금액은 80억 루블리로 18%에 해당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한이 있었어도 2020년의 건설량이 2019년의 지표를 넘어선 것은 단지 한 달(4월 7.3% 증가)뿐이었다. 나머지 11개월은 건설량이 줄어든 가운데 하락률은 1/4분기에 5%, 2/4분기에 2.9%, 3/4분기에 16.2%, 4/

분기에 34.1%이었다. 건설 분야의 하락은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다.

이주민 감소로 인해 지역 건설 현장도 동결되었다.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세웨로쿠릴스크를 비롯해 전 지역의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팬데믹은 산업에 있어 예산의 흐름에서나 개인적 거래처에서나 자금의 흐름을 끊어놓았다. 대신 사할린 주에서 주택 건설의 속도는 양호했다. 모든 건설업체가 6,036 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2019년보다 1,605세대 증가했다. 개인 건설업자들은 전체의 34.5%인 15만2백㎡를 건설했다.

2020년, 사할린 주민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

사할린 통계국은 2020년 사할린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 기준 사할린 지역에 인구 48만8천3백 명이 거주했으나 11개월 만인 12월1일에는 인구가 감소해 잠정 집계로 48만6천1백 명으로 나타났다.

요인은 자연적 감소의 가속화, 인구 유출의 가속화에 있었다. 통계국이 이전에 발표한 정보에는 국제적 이주도 추가될 수 있다. 2019년에는 5천29명이 사할린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4천205명이었다. 반대로 사할린을 떠난 사람은 2019년에 3천383명이었고, 2020년에는 5천189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사할린에 입도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이 아닌 방문자를 제한하는 전자통행 시스템이 영향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코로

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러시아와 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CIS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다.

통계국은 노동인구도 보고했다. 1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1월에는 27만5천800명(전 주민의 56.3%)이 노동에 종사했다. 이 중 경제 분야 종사자가 26만1백 명(94.3%), 국제노동기구 방법론에 따르면 1만5,600명이 실업자다.

표본조사 없이 공식적 집계로는 실업자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용센터 자료에는 실업자 수가 3천636 명(2019년 2천533명)이 등록돼 있고 실업자 증가율은 5.2%에서 5.7%로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실직자로 확인된 사람은 2천19명(2019년에 1천453명)으로 여기에서는 39% 증가했다.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담당관회의 열어

150여 재외공관에서 180명 참여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 협업 논의

외교부가 1월27일과 28일 재외공관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의 공공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전 세계 150여 재외공관, 180여 공공외교 담당관이 참여했다.

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재외공관들이 창의적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가 획기적으로 상승했다"고 전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공공외교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인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지자체, 기관 등 다양한 공공외교 수행 주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향후 지역별 재외공관 공공외교 담당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컴퓨터 키보드 키 탑 위에 「조선글과 한글」로 북·남이 함께 놓은 통일의 징검다리

「한겨레 통일 표준글 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통일 컴퓨터 드라이브 자격」 개발을 중심으로

(전호의 계속)

3.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인체공학적 설계는 장시간 글자판 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손과 손목의 이상 증상(완골터널증후군(STS))과 반복 사용기장성증후군(RSI) 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모를 배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정보관리협회가 발간한 「통일컴퓨터드라이브자격 직무분석」을 참고하면 이상적이다).

4. 사무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타자동작 연구(오거스트 드보락 박사: 워싱턴대 교수)>>를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자·모를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 북·남이 서로 제안한 민간자격 북측의 「전자문서원」, 남측의 「문서실무사」 그리고 「통일 컴퓨터드라이브 자격」에 대한 분석보고서 <<평양교육성 (교육정보센터 소장 리수락박사)>> 일부를 소개한다

조석환·조석팔 공저 <<문서실무사자격 검정교재>>, <<실기, 필기, 학습지도안 규정 및 전자문서 해설집>>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키보드교육과 각종 문서 편집능력 배양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안과 함께 작성된 훌륭한 교재들에 기술인 필자 선생님들의 노력과 심혈, 그리고 문서실무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시험제도를 실현시킨 공헌에 대하여 동업자들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직접 참관하신 글자판 경기대회의 호식에 대한 서술을 비롯하여 책의 여러 갈피에서 피력하신 선생님들의 민족대단결정신과 통일 애국자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진지한 탐구와 노력이 깃들어있는 이 교재들은 의심할 바 없이 민족공동의 정보기술교육과 정보사회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재의 규정 세칙들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용되는 교재를 완성시키려고 하여 이와 관련한 몇 가지의 의견을 분석보고서 형태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진지한 연구 분석과 심혈을 기울이며 남측의 학자들의 연구와 노고에 감사 한다는 대목에서는 한겨레의 뜨거운 동질성을 느끼기도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 북·남은 통일보다 교류가 먼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한 민족이 한나라가 되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통일을 이루기에는 가나긴 70년 세월을 지나면서 나름의 문화와 교육 그리고 풍습으로 또한 서로 다른 이념으로 극한의 냉전 시대를 한순간에 마감하기란 너무 쌓인 결집돌과 문제가 많았다. 성급한 통일보다 먼저 점진적인 교류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노력한다면 발생할지 모르는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조 박사는 깨달았다. 그리고 북측의 학자들이 조 박사를 도우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보며 원활한 북·남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통



조석환 박사와 리수락 박사가 발명한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일시대 아니 통일 이전이라도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통일 컴퓨터드라이브 자격」을 북·남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합의에 이른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노력한 북·남 학자와 관계자들이 타계하거나 은퇴하여 더는 이상 진척이 없다. 북·남 교류가 다시 시작하려는 지금 "더 늦기 전에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결실을 볼 수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철심이 넘은 고령에도 조 박사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 조 석환 박사의 이력

■ 1945년 경북 영양 조지훈 시인 고향 마을인 (주실 마을)에서 출생

■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경력

청산 여자상업 전수학교 타자 실기 교사
성덕 여자상업고등학교 타자 실기 교사
일본의 Kodo 선생과 미국 UCLA Lowrance W. Erickson 교수로부터 전수를 받아 <타자교육과 기술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 평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성결대학교 재단 이사장

◎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한글 기계화 정보화 부문 전문위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표준심의회 정보기술 심의회」 컴퓨터 자판 전문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폰 자판을 천지인으로 국가표준화하는데 역할 기여

◎ 국가기술 자격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

◎ 평양 교육성과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

◎ 평양 교육성과 《통일 컴퓨터 드라이브 자격》 양성과정과 교재 공동개발

◎ 《한겨레 통일 표준자판을 갖는 단말기》 기술허가등록과 상표등록

■ 국립 한글 박물관 도록 《한글이 걸어온 길》 한글기계화 및 정보화 부문 집필

□ 수상 내역

1999년 국민포장

2010년 옥조근정훈장

(한국정보관리협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смен впервые завоевал золото чемпионата ДФО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Чемпиона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прошёл в Уссурийск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остязались восемь команд,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Приморский, Хабаровский, Камчатский и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я,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и Бурятию, а также Магаданскую 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и.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юнош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ставе Ивана Леонова, Василия Пака, Антона Баранова, Евгения Шпака и Алексея Дунаева завоевала серебряную награду турнира, уступив лишь соперникам из Бурятии со счётом 3:1.

В личном зачёте Василий Пак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золота чемпиона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стровной спортсмен одержал пять побед подряд и в финале встретился с Батором Даминовым,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Бурятию. По итогам игры Василий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звания чемпиона, победив со счётом 4:2.

Заработав золото, Василий получил пропуск на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 Москве с 12 по 19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будет запущен с космодрома Байкону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500-килограммов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в космос 20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с помощью российской ракеты «Союз 2.1а» с космодрома Байконур в Казахстане. Как сообщили 22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пуск намечен н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этого года. Спутник, оснащённый системой датчиков изображения, который разработ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на низкой околоземной орбите 497,8 км над поверхностью Земл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начнё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высокоточные видеоизображения Земли с июня. Ещё один спутник того же тип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в начале 2022 года. Идёт работа над первой ракетой, разработанно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течеств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Её запуск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KBS World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стал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ервог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Фестиваль "ЗоолитФест" проходил с 5 октября по 10 ноября 2020 г. Работы прислали 96 школьников, 72 из них прошли отбор, 16 —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первого места в 5 номинациях на литературном соревнован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зоопарка, один — одержал абсолютную победу и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Ещё трое участников — дипломы лауреатов, один — спецприз за тщательно проработанный и захватывающий сюжет.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в номинациях: поэзия, малая проза, фольклорная проза, журналистский текст и фэнтези и фантастик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аботу Пак Игоря, получившего спецприз за тщательно проработанный и захватывающий сюжет.

«Приключение Венерина Башмачка и его друзей» Номинация «Фантастика и фэнтези»

Пак Игорь, 4 «В» класс МАОУ СОШ № 26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азрешите представиться, я Венерин Башмачок. Мы с друзьями ж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Страшные браконьеры пришли к нам и принесли много горя: выловили редких животных, уничтожили лесные ягоды и разные виды исчезающих растений. Я, Можжевельник Прибрежный, Дрема Сахалинская и Касатик Кровный решили сбежать на юг Сахалина. Когда мы вышли из леса, то увидели перекресток. Можжевельник предложил разведать территорию. На север не пошли, там холодно. Я повернул на запад, Дрема с Касатиком на восток, а Можжевельник на юг. Было всем страшно, договорились встретиться через час на этом же месте. Я тихонько крадись вдоль дороги, как вдруг увидел браконьеров, они замыслили идти на юго-восток и губить природу. Я тут же рванул обратно, чтобы сказать ребятам, но увидел только помятого Касатика.

— Где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 плача от страха, тормозил его за веточки.

— Они в плену... — слабым голосом ответил Касатик.

Когда друзья встретились, на них напали браконьеры. Касатика побили и выбросили, а остальных забрали.

— Зачем мы вам нужны!? — спрашивают пленные Можжевельник и Дрема.

Браконьер, радостно потирая ладони, ответил:

— Нам нужен Можжевельник Прибрежный, потому что шишки его богаты витаминами, органическими кислотами, эфирными маслами и другими полезными веществами. Из них готовят настои и мази, а Дрема Сахалинская нужна, потому что по древним поверьям из нее можно сделать сонное зелье. Мы разбогатеем! И тут он скомандовал:

— Опустить Можжевельника и Дрему в криогенную камеру!

— Неет! Отпустите нас!!! — кричали несчастные растения.

Клетка с ними стала медленно опускаться в камеру.

В это время мы шли по следам браконьеров, тихонько заползли к ним в палатку и увидели, как клетка опускается в криогенную камеру. Что же делать?! Тут на глаза попался динамит, которым браконьеры глушили рыбу. Подожгли его около входа, прозвучал оглушительный взрыв. От неожиданности браконьеры бросились врассыпную, и мы освободили своих друзей.

После спасения Дремы и Можжевельника, собрали совет. Я рассказал про план браконьеров. Оказывается, мы были единственной группой редких растений, которая осталась в этом месте. Вс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идти дальше. День был теплым и солнечным, не было даже маленького ветерка. Вдруг я вижу, как дрожит небольшой кустик, а под ним маленькую Родиолу Розовую. Скорее всего, она потерялась в этой суматохе и испугалась. Мы взяли ее с собой и продолжили свой нелегкий путь. Было очень грустно уходить из своего дома, где ты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Так мы шли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вдруг из-за поворота увидели огромное серое здание. Вокруг ходили вооруженные браконьеры, они заносили внутрь ящики и клетки. Я понял — это их база.

Нам нужно туда попасть! Вдруг там есть наши и их надо спасти! Дрему оставили с маленькой Родиолой на поляне. Было страшно входить в неизвестное здание.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мы проскочили незаметно мимо охранников. На втором оказался огромный зал,

забитый клетками и ящиками с нашими лесными соседями: растениями, зверями и птицами. Многие уже последние в своем роду. Все измученные и несчастные. Мы растерялись и нас заметили, полетели дымовые шашки, я успел схватить за стебель Касатика, а он Можжевельника и мы рванули прочь. Силы были неравными. В дыму мы сблизись с пути и попали на другой этаж. Там оказался Босс браконьеров, на его груди надпись — ВВОТ30, это робот. Он атаковал нас лазером и успел схватить Касатика. Пока Можжевельник яростно бросался иголками в голову Босса, я выхватил лазер и выстрелил в робота. Босс бросил Касатика об стену и упал. Касатик получил серьезную травму: перелом стебелька. Мы схватили друга и побежали к выходу.

Нас ждали Дрема и Родиола, бедные цветочки слышали весь шум и уже не надеялись увидеть нас живыми. Как здорово было опять встретиться! Мы всё им рассказали, забинтовали стебелек Касатику и стали думать, как же освободить пленных. Тут Можжевельник Прибрежный вспомнил, что когда-то рядом с ним в палатке жили юные Защитники природы, они зарисовывали растения и описывали их. Нужно срочно найти Защитников! Можжевельник услышал, что они живут на пике Чехова. Это же так далеко!

Решили строить летающий корабль. Можжевельник стал носить сухие ветки деревьев, я связывал их лианами виноградника разнолистного, Родиола таскала перья, а Дрема листья лопуха. Касатик лежал с больным стеблем. Вскоре летающий корабль был готов, и мы полпыли по небу. Полёт проходил нормально. Можжевельник встал за штурвал, а остальные отдыхали и любовались сахалинской природой. Вскоре у Касатика поправился стебелек. Все были рады. Вдруг наш корабль столкнулся с вершиной хребта Жданко. Стали падать, я быстро заделал дыру бамбуком, и мы полетели дальше. Вот показался пик Чехова, на вершине которого развивался зеленый флаг Защитников природы. Нас переполняла радость, что смогли добраться до ребят. Перебивая друг друга, м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с нами произошло. Защитники очень встревожились и подняли тревогу. Нужно срочно спасать лесной мир! Мы возвратились к своему летающему кораблю и полетели обратно на базу, показывая дорогу Защитникам. Они за нами на маленьких одноместных вертолетах, на каждом было по пять пушек и мячи с сонным порошком.

Вот на горизонте показалась база браконьеров. Мы долетели первыми. Сразу началось сражение. Я с Касатиком впереди, Можжевельник и Родиола слева, а Дрема защищала правую сторону. Браконьеры нас окружили. Поначалу мы справлялись, и вдруг вышел робот, страшнее и больше прошлого... Тут подоспела помощь — юные Защитники природы! Они применили пушки с сонным порошком, браконьеры стали один за другим засыпать. Но всё равно мы не могли победить робота. Вдруг услышали звук машины и увидели, как Можжевельник за рулем стреляет из лазера, который нашел в кузове. Робот повержен. Всех браконьеров связали и отправили в полицию, их ждет справедливый суд.

Всех растений и животных осмотрели, подлечили и отпустили на волю. В честь победы запустили салют. Защитники природы объявили, что всех занесли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перь никто никогда нас не обидит. Мы счастливы!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овые варианты COVID-19

В среду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сообщило о выявлении пяти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й новыми вариантами COVID-19. Речь идёт о первой передаче вируса внутри страны, а не о его ввозе из-за рубежа. У четверых был диагностирован «британский» штамм коронавируса, у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 южноафриканский вариант COVID-19.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7:00 общее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новыми видами COVID-19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о 39.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четыре пациента заразились после встречи со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в своих домах в провинциях Кёнсан-Намдо и Чолла-Намдо. В этой связи учёные говорят,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новых вариантов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стране - вопрос времен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рекомендовано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В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южнокорейцы традиционно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предстоящие праздничные выходные среднесуточный поток люд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еремещаться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составит 4 млн 38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32%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росла доля тех, кто намерен отправиться в поездку не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а на личном автомобиле.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ывает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передвижение и контакты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о время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плата за проезд по скоростным дорогам будет взимает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До пандемии в круп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данная плата отменялась. Полученны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борьбу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Также будут усилены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относительн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поездах можно будет забронировать только места у окон. По этому принципу рекомендуется бронировать места также в автобусах и самолётах.

Если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могут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ы

Если станет понятно, что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слаблении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1 феврал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инятое накануне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длить ещё на две недели действующий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Этот шаг,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то, чтобы помочь стране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начать вакцинацию, вызвал протесты со сторон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серьёзно пострадавшего от длитель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Чон Сэ Гюн отметил в этой связи,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курсе ситуации с малым бизнесом.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жители страны будут доверя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выполнять антивирусные меры. Он поручил разработать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вирус,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ла бы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в стабильных условиях. Она должна учитывать интерес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самозанятых.

Первыми будут вакцинированы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массовая вакцинация начнётся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связанные с лечением пациентов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чиная с февраля. Как сообщили 28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будут вакцинированы около 50 тыс.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Затем вакцинации подвергнутся 780 тыс. человек из группы повышенного риска, включая проживающих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С середины марта будут вакцинированы сотрудники больницы общего профиля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с тяжёлыми симптомами, карантинные инспекторы и следователи-эпидемиолог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их общее число составит около 440 тыс. человек.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центр вакцинации будет развёрну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в Сеуле. Затем такие центры появятся в трёх больницах общего профиля,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в других частях страны. Начиная со второго квартала, прививки начнут делать пожилым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ам учреждений, обслуживающих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инвалидов.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оценивается примерно в 9 млн 400 тыс. человек. Право на вакцинацию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получат также 380 тыс. сотрудников частных клиник и аптек. Начиная с третьего квартала, вакцинацию смогут пройти страдающие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жители страны от 19 до 64 лет. К сентябрю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ить 70% населения, а к ноябрю сформиров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Вакцинация всех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будет бесплатно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РК поступит вакцина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AstraZeneca. (RKI)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товятся к фестивалю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Школьни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V муницип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ится 12 февраля на базе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род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дут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Цель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 развитие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у детей, занимающихся внеу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развитие их творческих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е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 основе страновед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глашают школьников 2-11 класс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Для детей 2-4 классов проведут:

-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Символ года" (изготовление символа 2021 года — быка);
- конкурс чтецов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Для ребят 5-11 классов:

- конкурс-эссе на заданную тему (на япо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Символ года" (изготовление символа 2021 года — быка);
- онлайн-викторины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Корея, Китай, Япония);
- конкурс чтецов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оцени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жюр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и АНО "Японский цент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учите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и СахОУНБ, педагог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и конкурсные материалы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лять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yusgo.maouvg@sakhalin.gov.ru до 10 февраля.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Население сокращается, вузы под ударом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который в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илетия будет,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главной проблемой Кореи, продолжает обостряться — причём это обострение происходит быстрее, чем ожид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вопросам демографии.

В этом году рождаемость оказалась вообще рекордной. Точных данных для 2020 года пока нет, но похоже, что общий коэффициент фертильности в 2020 году составил 0,82 рождений на женщину — в 2,5 раза (!) ниже уровня прост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селения, то есть то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населения на стабильном уровне. 2020 год стал первым годом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в котором количество смертей превысило количество рожден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начало сокращаться, и нет оснований думать, что процесс этот остановится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Газета «Чуньян Ильбо» 18 января опубликовала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едённого её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в вузах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готовятся к приёму студентов-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инается 1 марта, а «поступательный сезон» проходит осенью-зимой).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ались несколько обескураживающим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Корее имеется 187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 4-летним сроком обучения. Из них в 18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онкурс составил менее 1 человека на мес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эти университеты располагаются в провинции, в основном в юг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То есть в провинциях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Чолла. Исторически этот регион был житницей Кореи, главным рисопроизводящим районом, но сейчас о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традает от депопуляции. Население быстро стареет, а молодёжь уезжает в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в Сеул.

Вдобавок в 90 (из 187) вузах конкурс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менее трёх человек на одно место. Чтобы понять значение этой цифры, надо принять во внимание то, как устроена система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Корее уже почти полвека существует система ЕГЭ. Студент, сдающий ЕГЭ, имеет право (коим правом он почти всегда пользуется)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одновременно в 3 вуз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поданных в вузы заявлений надо условно делить на 3, ибо каждый абитуриент порождает 3 заявл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если в вузе конкурс (то есть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енных заявлений) меньше 3-х заявлений



Фото: <https://newslab.ru/article/820926>

на место, то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на практике на первом курсе будет наблюдаться недобор, ибо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лений всегда превышает количество реально начавших занятия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в 3 раза.

При этом всё очень неравномерно. В вузах Сеула конкурс составил 5,04 заявлений на место (т.е. примерно 1,7 реальных абитуриента на место). В столичн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конкурс — 4,87 заявлений на место, в Инчхоне — 4,72 заявлений на мест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провинциях дальнего юга («дальнего», конечно же, п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меркам — от тех мест до столицы 300-400 км) конкурсы составляют менее 2-х заявлений на место.

В попытках привлечь исчезающих студентов вузы идут на невероятные трюки. В частности, один из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вузов заявил, что всем поступившим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в подарок айфон.

Всё происходящее — лишь начал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шторма, который скоро захлестнёт Корею, а вслед за ней и многие иные 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а вслед за ними, похоже, и весь мир. Пока все испуганно кричали о «перенаселении»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м взрыве», на нас (сначала — на развитые страны, а потом — и на человечество в целом) накатываются две новые волны: сначала — волна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а потом — волна депопуляции. Южная Корея, кажется,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оказалась впереди планеты всей, да ещё и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Так что будем наблюдать.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Источник: <https://tttkkk.livejournal.com>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в ряды волонтеров 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ют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серебрян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и привлекать к занятию спор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2020 году число актив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возросло в 4 раза и превысило 8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создан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граждан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гут включиться в процесс и помогать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работу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пример, вовлекать жителей в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здоровый досуг для старше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с начала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мы далеко продвинулись. Видим,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вступают в ряды волонтеров спорта и раньше не занимались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ью, начинают раскрываться, находясь в пенсионном возрасте. При этом им помогают люди такого же возраста, вовлекая в массовый спорт, спартакиады, спортивные слеты и они начинают жить совсем по-другому,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2020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шло более 500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таких масштабных, как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них принял каждый десятый серебряный волонтер.

— Спортивн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тесно связано с проектом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Он призван безвозмездно привлечь на объекты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активно провести досуг,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заняться спортом. Именно эти люди являются для нас опорой в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е,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около 50 объектов спорта, на которых участники безвозмездно могут прийти и актив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На каждом из них ес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инструктор, прошедший подготовку по работе с людьм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н определяет нагрузки для каждого пенсионер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его возможностей.

—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ет 10 место по России в спартакиаде пенсионеров. Мы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ли одну чемпионку России по стрельбе. Это результат колоссальной работы, — подел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пенсионеров, ветеран спорта и идейный вдохновитель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 Среди нас немного тех, кто раньш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занимался спортом. В основном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смогли оторваться от диванов и телевизоров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жизнь без занятий в залах.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волонтера спорт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портале: dobro.ru. На этом сайте также формируется перечень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А чтобы стать частью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совет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или позвонить члену совета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о спорту при губернатор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у Забелину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7 (962) 104-29-47.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те субсидированных авиарейсов между Охой и Хабаровск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у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обновить авиасообщени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Полеты должны начаться в марте.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все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авиарейсы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через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Это позволило удержать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в самые тяжелые месяцы и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допуск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в этой борьбе стала массовая вакцинация, которую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ч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 Теперь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емся к прежне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считает важным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ернуть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Охой и Хабаровском. При этом перед нами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сохранить прежнюю цену на билеты — около 6 тысяч рублей в одну сторон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 Этого уже давно ждут жител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ямое сообщение с материком для них очень важно.

По слов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йчас решаются вс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для запуска рейсов,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отбору авиакомпаний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на выполнение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убсидированных перевозок. Планируемая частота полетов — до трех раз в неделю.

Напомним, прямые рейсы из Охи в Хабаровск и обрат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и ее последствий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олетов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сэкономит пассажирам время в пути.

Решение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авиарейсов из Ноглик и

Шахтерска в Хабаровск будет прорабатываться отдельно. Замп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евысили показа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ускор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Его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вице-премьеры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и 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а также глав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2020 года возвели 43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Это на 100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2019-ом. Сформирован задел на этот год —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 У нас по нацпроекту в среднем станд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 0,82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жилья на человека в год. Сахалин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серьезно в этом вопросе продвинулся — у области показатель уже 0,89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человека. Регион — лидер в стране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мы сейчас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подробно обсуждаем запуск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 отметил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этом году переходит к следующему этапу — расселению жилья,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знано непригодн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ейч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Полностью решить вопрос планируе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За 5 лет предстоит расселить свыше 6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на 1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 Новоселье должны отметить более 25 тысяч семей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К 1 марта мы готовим к принятию региональную адрес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в 2021-2026 годах. С помощь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ы сможем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обеспечи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мфортными квартирами.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рабо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лья, запуску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наце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закрепить людей на островах и обеспе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 Чем больш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нового жилья, создан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тем больше людей буд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связывать свое будуще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ждались также результаты борьбы с пандемией, реализац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ыполнение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2021 год.

Сахалинским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расскажут, как получить президентский грант

Обучающий семинар пройдет 12 февраля, с 16 до 18 час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глашаются в большой зал «Кунашир», 2 этаж, 225 кабинет. Такж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ь.

На семинар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сскажут, как правильно оформить и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ую заявку,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из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и записаться на семинар можно до 11 февраля по телефону: 8(4242)42-42-30.

Напомним,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принимаются с 1 февраля по 15 марта.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по 13 направлениям — от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до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талантов 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Жители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 отметили новоселье

Современные дома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построили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осточн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Горнозаводск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сего — 69 семей.

Т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хэтажки на улице Привокзальной в селе Восточное прошло в ускоренном темпе — оно продолжалось меньше год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объекта более 1,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возведение дома направили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В дом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одно-, двух- и трехкомнатные квартиры. Рабочие сдали их «под ключ». В помещениях выполнили внутренние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провели электричество, установили сантехнику, межкомнатные и входные двери, а также пластиковые окна.

— В пиковые дни здесь работало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Приходилось трудиться в несколько смен. Загрузка была большая, но мы справились, — подчеркну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Алексей Кобычев.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имерно на 20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прежних.

— Ждал этого переезда, можно сказать, 30 лет. Очень доволен — квартир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рошие. У меня есть план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Вот хочу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уложить ламинат. Я его уже купил.

А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возвели сразу 2 новых дома на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даний — почти 2,5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домах 45 квартир, в которых есть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Новоселам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перевезти мебель.

— Новая квартира нравится. По квадратуре она даже больше старой. Очень радует, что теплая,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новоселов.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расселили 12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акого жилья, в планах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 еще 64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с помощь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уменьшилось число обращений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пад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едет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лановых приемов,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и други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озвращению к привычному режиму работы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ует активная вакцинаци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ходится в тройке лидеров по темпам иммунизации.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шагов стало решение о закрытии кабинета ОРВИ в противотуберкулезном кабинете.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планируется сократить число коек, отведенных под леч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 Заболевания сердца, онкология, диабет и другие серьезные состояния не должны уходить на второй план. Мы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быстрее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работ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 массовой вакцинаци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нее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Минздрава РФ Михаил Мурашк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озна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артии вакцины.

— Объемы иммунизации напрямую влияют на выделение препарата регионам. Потребность в вакцине пока превыш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завода-изготовителя. Приоритетные поставки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в субъекты, где эта работа налажена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числе лидер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вакцины происходит по всем районам —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количеству жителей. Несмотря на транспортную логистику,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есть у людей из самых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ля удоб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сширены каналы записи — по телефону 1-300,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9 янва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кцинацию прошли 12 800 человек, из них оба этапа — 1 360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оддержат бизнес при переходе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Для всех остро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 в 2020 году применяли единый налог на вмененный доход (ЕНВД), в том числе, совмещали его с другими видами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случае перехода на упрощенную систему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пониженные ставк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В России с 2021 года отменен ЕНВД для бизнеса.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которые его платили,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йти на иной вид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Это может быть упрощенный режим или патентная система.

— Мы провели работу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 подготовили ряд мер,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плавный переход к иным видам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чь идет о введении пониженных налоговых ставок. В частности, меньше будут платить такие важные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бъекты торговли, как социальные магазины, обладающие официальным статусом,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интересах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ереходящих на патентную систему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действующ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нормат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вносятся изменения. Например, увелича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допустимые размеры площади торговых залов стационарной торговой сети и организац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Расширится и перечень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ведения которых необходим пате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вскоре внес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Дум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자가 격리 기간동안 한국어 원격학습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니일과 아나스타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국립대학교 4학년생이고, 전공은 해외지역연구, 아시아 연구입니다.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러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긴 서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새로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원격학습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격 학습은 첫날부터 공부 문제로 우리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이라는 형태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일까요? 원격수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의 진도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것과 교수님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에 대해 애매한 관계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선생님과 개인적인 연락을 할 때, 느낄수 있는 감정과 기분 그리고 제 오류를 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의 지적은 제 학습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 때부터 저희 교수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은 유용한 문법 규칙뿐만 아니라 재

미는 없지만 유용한 실전 문제들로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원격수업에서도 앞서 말했던 "개인적 컨택트",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교수님과 부분적인 개인적 컨택트는 있었습니다. 비디오 원격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말하기 실력을 높여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원격수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점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고,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규칙을 옮겨 쓰는 것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칠판을 보고 필기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매우 편했습니다. 어디서 수업을 기다리는 것이 더 편한 것인지 차이를 느꼈습니다.

3월에는 대학교 건물 안에 추운 복도에서 하는 게 더 편한지, 아니면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함께 자신의 침대 위에서 기다리는 게 더 편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수업의 다른 문제점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학생들을 컨트롤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들에게는 이걸 절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교육시스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연습할 때, 학생

이 이미 습득한 지식을 확인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한국어 원격학습이 학생들의 방학과 같은 것이고, 옛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법은 수업시간에 공부방이나 원격학습을 할 때에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분위기에서 익숙해지는 방법과 선생님의 재능과 함께 학생들의 소망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이 가끔 얻을 지식을 효율적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집에서 대학교까지 걸리는 거리, 교통비와 소비되는 시간 대신에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외출 안해도 배우는 과목을 더 흥미롭게 공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2020년 한국어 원격학습은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되었으며 다른 과목도 배우는 방법을 쌓는 경험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Специальность «Зарубежное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IV курс
Макаренко Даниил, Борщёва Анастасия

[우리말로 깨닫다]

칼바람을 지나며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비유는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표현입니다. 비유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비유의 위력입니다. 바람을 비유하는 말 중에서 '칼바람'은 너무 강력해서 놀랍습니다. 바람을 칼이라고 한 겁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내 살을 베어 버리거나 찢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살을 베는 추위'라는 말에도 비슷한 감각이 느껴 집니다. '에다'는 칼 따위로 도려내듯이 벤다는 의미입니다. 칼바람과 베는 추위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추위입니다. 그래서 칼바람은 두려움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좀 추워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겁니다. 한 데에서 추위를 견디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매서운 추위는 그야말로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겨울 추위가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갑니다. 쾅하고 지나가는 바람에서 우리는 칼을 봅니다. 마치 얼음장이 날카롭게 깨어져 바람결을 따라 날아드는 모습입니다. 바람은 원래 소리가 무서운 법인데, 소리가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상처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날카로운 소리에서 날이 선 칼을 봅니다.

그래도 겨울바람이 일 년 내내 계속 되지 않음은 희망입니다. 바람을 맞고 선 소나무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몸을 기울이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합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며 자라납니다. 소나무가 겨울의 상징이 된 것은 겨울바람의 추위에도 푸르게 서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서 인고(忍苦)의 세월을 떠올립니다. 고통을 말없이 이겨낸 대견함에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 옵니다.

소나무의 꺾짐을 보면서 저는 다시 칼바람을 떠올렸습니다. 칼바람에 상처 입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터 버린 손등이나 살갓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진 모습이 고통의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듯이 갈라진 모습에서 우리는 때로 아름다움을 봅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지식과 감정의 차이를 느낍니다. 안쓰러움이 감동이 되는 일도 많습니. 참 어려웠을 겁니다. 힘든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겨낸이 고맙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분에게서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나무의 사진과 글을 받았습니. 여기저기 잘리고 꺾인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멋이 있었습니다. 글을 보내신 분은 비워냄을 이야기했습니다. 겨울나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에 스스로를 맡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즐거운 시간도 지금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은 지나고 나면 멋이 되는데, 지내는 동안은 칼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겨울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고통 속에서 칼바람을 맞은 이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칼바람을 지난 이의 가슴이 말없이 서 있는 소나무처럼 쓸쓸하지만 따뜻합니다. 칼바람이 불수록 서로의 따뜻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세상의 이치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겨울에는 좀 추워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물론 봄에도 꽃샘추위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도 오겠쎬. 그러나 겨울바람과는 다른 봄바람이 불 것이고, 하나 둘씩 꽃이 피어 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칼바람을 이겨낸 서리가 더 고맙겠쎬. 아, 갑자기 매화, 동백이 보고 싶고, 개나리, 진달래가 보고 싶네요. 어서 칼바람을 지나가게 하고, 꽃 피는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 가득 맞고 싶네요.

[경인종합일보]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와의 인터뷰 '외교관은 애국자여야 하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면의 계속)

사실 2020년은 러·한수교 3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연합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장관이 언급했듯이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과 관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정치,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에서 상당한 협력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와 한국은 상호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일반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상호이해에 기초해 진정으로 우호적인 관계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쌍방의 교류 계획이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국교 수립 30주년 기념행사 등, 여러 행사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주 정부와 블라디보스톡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관 출장소, 사할린주 한인협회, 한국교육원, 러시아 외무성 대표부 등의 협력 덕분에 사할린주의 주민들과 많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한국어 최고 실력자 자리를 겨루는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열렸고,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 공예 활동교실, 김치 축제 등이 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할린 한인: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많은 사람들의 관

심을 불러일으켰습니. 세르게이 라브로브 장관이 언급했듯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는 서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사업인 상호교류의 해는 수교 30주년 기념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연기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021년에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문화부와 대한민국 문화부를 통한 상호교류의 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의 '러시아의 시즌들'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제12회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성황리 개최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통해 생애사 연구이론 · 사례 소개

이번 캠프는 '질적연구로서의 생애사와 내러티브'를 주제로 중견연구자 세 명의 특강과 신진연구자 6명의 박사논문 발표로 진행됐다. 19일 김영순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의 질적연구자와 연구자의 윤리를 시작으로 ▲염지숙 건국대학교 교수의 내러티브, 내러티브 연구, 내러티브 탐구 ▲윤택림 한국국술사연구회 소장의 국술생애사 연구의 이해, 20일 ▲남해경 NM생애사연구소장의 한인이주여성 생애사 연구 ▲배경임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장의 이주민 지원 기관 목회자의 생애사 연구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의 사할린 한인의 내러티브 탐구 등 생애사연구 발표로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인하대 황혜영 박사의 재한 결혼이주 여성의 생애사 연구 ▲다문화 및 사회통합연구소 허숙 박사의 재

한 이주민사업가의 생애사 연구 ▲김기홍 박사의 진로전환 경험자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등 생애사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캠프를 주관한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교수는 "질적 연구로서 생애사에 대한 이론과 박사논문 적용사례 특강을 통해 학위논문과 연구논문 등에 기초가 되는 논문작성법을 학습할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는 매년 2차례 질적연구방법론 캠프를 열어 다음 캠프는 오는 7월에 예정돼 있다.

[경인종합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번 행사는 <2021 сахалин의 얼음> 제10회 아마추어 겨울 낚시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НаВажный фест»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15 по 28 феврал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НаВажный фест». Во время его заведения –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предложат гостям специальное меню с уникальными блюдами из свежепойманной корюшки и наваги.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В фестивале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20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сех заведениях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единая цена — 400 рублей за одну порцию фестивального блюда. В меню: филе наваги с пюре из брокколи, сыром чеддер и мидиями под соусом биск, ароматная корюшка на луковой подушке с картофельным пюре и свежей зеленью, филе наваги с крабом в сливочном соусе или навага с луком в японском стиле.

Завершени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ажный ужин».

Создавать блюда будет трио заслуженных кулинаров: Михаил Набережный — шеф-пова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Валерий Ковалев —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улин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Сакура», член национальной гильдии шеф-поваров России, Марко Радованович – мастер балканской и средиземноморской кухни.

Ужин состоится 28 февраля с 18:00 до 21:00 в банкетном зале «Маркиз», отель «Мега Палас», 1-й этаж. Организаторы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кулин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Сакура».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X юбилейного фестиваля любительско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2021».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적게임 선수권 대회 개최

1월 31일, '등대' 미술관에서 '로고스' 클럽이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24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적게임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다. 지적게임 유즈노사할린스크 선수권 대회라는 명목으로 여러 학교(제1, 3, 5, 8, 26, 32호 학교와 제1, 제2, 제3 김나지아, 제1, 제2 리찌이)에서 출전한 11개 팀이 경기를 치렀다.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와 선수권 대회 기간에 치러진 멀티 미디어 부문의 모든 문제들은 '로고스'클럽이 작성했다.

이번 대회의 챔피언인 제 1 김나지아 팀은 2라운드 중 첫 라운드부터 계속 선두를 지켰다. 2위와 3위는 질문마다 치열한 경쟁으로 자리가 뒤바뀌는 가운데 2위는 제 2 김나지아 팀이, 3위는 제1 리찌이 학교 팀이 차지했다. 상위 5위까지 팀들에게는 책, 보드게임을 수여하고, 올봄 정기적으로 '레소노예 오제로(숲속의 호수)' 건강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 에루디트(박학다식)' 축제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우승 팀에게

는 고학년 그룹의 챔피언에게 이양되는 상패인 크리스탈 부영이를 수여했다. 특별상으로 출제진은 제5호 학교를 대표해 대회에 출전한 여학생에게 수여했다고 '로고스' 클럽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чемпионат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31 январ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клуб "Логос" провел 24-й чемпиона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стар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За звание чемпи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сразились 11 команд из разных школ (школы №1, 3, 5, 8, 26, 32, гимназия №1, лицей №1, гимназия №2, лицей №2, гимназия №3). Все вопросы "Что? Где? Когда?" и блоки мультимедийных фрагментов, которые игрались во время чемпионата,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авторской группой клуба "Логос".

Чемпион сезона, команда гимназии №1, уверенно держала лидерств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первых туров. Серебряный и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ы менялись после каждого вопроса. В итоге серебро досталось гимназии №2, бронза – лицею №1.

Команды, занявшие пять первых мест,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книги,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и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фестиваль "Эрудит 2021", который по традиции пройдет этой весной на базе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Лесное озеро". Команде-победителю, помимо прочего, досталась хрустальная сова — переходящий приз для чемпиона в стар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Отдельным призом авторская группа отмет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у школы №5, единственного игрока от своей школ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луб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